



北海 유전사고의 파장

지난 4월 18일 英國 北海 코모렌트(Comorant) 유전(셀社 보유)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는 알래스카 原油누출사고에 이어 또다시 국제석유시장에서 공급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이번 사고로 브렌트원유는 47만B/D의 공급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장애현상은 사고유전의 수리 및 안전검사완료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.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알래스카 발데즈港의 원유누출사고에 따른 유가상승분위기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석유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.

특히 이같은 일련의 유전사고는 지난 1988년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또 OPEC(석유수출국기구)와 非OPEC 간에 감산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여 올해 석유시장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.

이번 코모렌트유전사고는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로 알려지고 있다. 이 유전의 산유량은 4만B/D에 불과

하나, 브렌트유전을 포함한 이 지역 생산원유의 파이프라인 운송시스템 폐쇄로 총 47만B/D의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.

사고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여러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, 앞으로 3~4주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한 전망으로 등장하고 있다.

이번 사고가 국제석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, 물량면에서는 약 1,000만배럴(47만B/D × 3주)로서 향후 1개월간에 30만B/D, 2/4분기 전체로는 10만B/D의 공급장애로 해석된다.

이같은 물량을 국제석유시장 수급측면에서 볼 때, 계절적 비수기인 2/4분기는 1/4분기 대비 50만B/D의 對OPEC수요감소가 예상되므로 OPEC가 1/4분기 산유량을 지속시키는 경우 수치상으로만 보면 수급상의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.

그러나 이 사고가 실질적으로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우선 공급자들이 「불가항력에 의한 공급불능」을 선언하는 경우 이미 알래스카 원유누출사고에서 본 바와 같이, 실물량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고, 또 심리적 요인에 취약한 석유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, 이번 사고는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유가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번 코모렌트유전사고는 실제로 1,000만배럴의 물량 감소를 의미하는 대형사고라는 점에서 국제석유시장에 큰 충격과 함께 「비정상적 高油價상황」을 상당기간 지속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러나 사고후유증에 대한 여타 산유국 및 소비국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①수주간의 비정상적 고유가상황의 지속, ②예상되던 2/4분기 유가하락 상황의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나, 올해 국제석유시장의 구도 자체를 바꾸는데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 ☐

브렌트油田의 原油생산현황
(단위: 천 B/D)

油 田 名	생 산 량
Brent	300
Cormorant	40
N. Cormorant	80
Deveron	5
Dunlin	(유지보수중)
Eider	50
Hutton	60
NW Hutton	30
Murchison	40
Thistle	50
計	650

〈註〉 65萬 B/D 중 18萬 B/D는 Brent Alpha, Bravo를 통하여 운송되기 때문에 이번사고와 무관.

北海 유전지도

